

辨證施治와 定病專方の 認識

康 舜 洙*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III. 結 論

I. 序 論

오늘날 東洋三國에서는 學者들에 依해 悠久한 歲月동안 發展·傳授되어 온 한의학을 어떤 方法으로 어떻게 發展시켜 未來醫學에 寄與하느냐에 대해 많은 意見과 討論이 續出한다. 이것을 傾聽해보면 모두 一理가 있다. 그러나 어떤 方法이 반드시 옳다는 結論은 없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研究努力하고 있으며 漸次 知識이 前進해 가고 있음에 疑心의 餘地가 없다. 偶然이라고 할지 分明한 것은 中國, 日本, 韓國이다 같이 科學的 研究를 通하여 한의학의 長點들이 確實하게 證明되어 간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共通적으로 한의학의 特長이 무엇이나고 하면 整體觀과 辨證施治라고 主張한다.

整體觀이라는 것은 人體를 몇몇 器官으로 나누어 보고 器官을 組織으로 나누며 나아가서 組織은 細胞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細胞에 焦點을 맞춘 細胞病理說이 西洋醫學에 至大한 影響을 끼쳐온 反面, 「人體는 小宇宙」라고 하여 작지만 完全한 한 個體로써 認識하려는 한의학的 思考에서 나온

것이다. 即 人間의 健康한 活動이나 病的 現象은 部分的으로 觀察하는 것은 不完全하다고 보므로 全體를 有機적으로 把握, 認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證이라는 것은 個個의 症狀에 意味를 附與하는 것이 아니라 身體에 나타나는 症候群을 把握하여 病的狀態를 認識하고 거기에 治療對策으로 處方을 選擇, 또는 構成하는 것이다.

이 時點에서 한의학의 特長이라고 하는 辨證施治와 西洋醫學의 治療方法이라고 하는 定病專方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어떤 長短點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補完하여 未來醫學에 寄與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앞에 놓여진 하나의 課題이므로 檢討해 보고져 한다.

II. 本 論

「辨證施治의 方法을 에워싸고 最近 數年來 많은 學者들이 積極적으로 研究를 進行하고 있다. 辨證七步法, 三段十二步辨證施治, 「二綱, 六要, 多變」, 三層辨析法, 五辨法 등의 名稱이 이미 알려져 있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方劑學 敎室

또 證의 本質에 着眼하여 重點的으로 研究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疾病의 辨別, 認識에 關하여 이러한 試圖은 참으로 우리를 啓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辨證法이 어느것이냐 다 疾病의 本質인 證을 分析하고 認識하는 것만으로 그 構想은 끝나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은 從來의 辨證方法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하여 方劑辨證은 方劑와 對應하는 證候들 方劑의 適應證候範圍에 依據하여 選定하는 分類辨證法이다. 同時에 疾病의 證候表現에 依據하여 方劑를 辨證하고 또한 方證相對關係의 一體화와 方·證의 屬性等의 問題를 探究하는 것이다.

「方劑辨證은 다른 辨證方法보다 훨씬 많은 內容을 包括하고 있다. 一面的인 執證方法이긴 하지만 方劑辨證은 辨證施治의 모든 內容을 概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方, 證, 相對에만 執着하면 아주 機械的인 辨證이 될 것이라고 憂慮하는 사람도 있는데 辨證(融通性있는 辨證?)은 柔軟한 處方에 依해 可能해진다는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方劑는 多樣한 變化가 可能하다. 方劑變化의 多樣성을 研究하는 것은 方劑 및 藥物의 有効성의 指標를 求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것이다.」

「中醫治療를 客觀化하기 위해서는 먼저 證의 客觀化를 指向해야 한다. 證의 客觀化가 되어야 비로소 方劑의 有効성의 指標도 客觀化가 可能해 진다. 方劑는 多種의 藥物과 그 밖의 複合抽出液으로 이루어지며 그 作用은 極히 複雜하다. 方證相對의 效果를 巨視的으로 觀察할 수 있게 되면 다음에 드는 것도 方劑의 作用을 理解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即 證에 包含된 病態 및 그것이 方劑에 依해 改善되어지는 過程을 分析하여 거기서 方藥의

藥理作用을 推測하는 것이다.」

「中醫學에서의 證은 綜合的인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몇가지 臟器의 病理變化를 包含하며 同時에 여러 方面의 病理, 生理에 걸쳐 있다. 많은 方面의 物質基礎가 모여서 하나의 證을 만들고 있다.

目下 綜合研究의 客觀化가 要求되고 있는데 證의 研究는 그 目的에 符合된다. 現代의 最尖端科學의 힘을 빌고, 많은 專門分野의 人力이 協力하여 證의 研究를 進行하면 現在까지의 理解되지 않거나 不明瞭한 部分이 解明될 수 있을 것이다.」

(北京中醫學院 學報 高鐸穎)

「專病專方은 實踐을 거쳐 認識되고 다시 實踐(臨床?)을 거쳐 證明된 것이다. 그것은 再實踐, 再認識(再確認?)이라는 無數한 反復의 結晶이며 辨證施治보다 貴한 것이다.」라고 有名한 老中醫 趙錫武 教授는 말했으며 最近 中醫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辨證施治만을 強調하여 專病專方の 研究를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偏向은 軌道를 修正하여 中醫學의 全面的 繼承과 發揚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北京中醫學院 學報 房定亞)

위의 引用論文을 잘 살펴보면 近年에와서 辨證施治에 대하여 많은 學者들이 關心을 가지고 研究를 進行시키고 있다는 것과 이것은 꼭 바람직한 事實이라는 것, 그러나 더 重要한 것은 方劑辨證을 研究해야 하며 方劑辨證은 보다 넓은 內容을 包括할 수 있다고 하고 證에 內包된 病態 및 方劑에 依해 改善되어가는 過程을 分析하므로써 方藥의 作用을 糾明해 가자고 한다. 그러기 위해 證의 客觀化, 方藥의 效能의 客觀化, 中醫治療의 客觀化가 必要하며 現代의 最尖端科學의 힘을 합하고 專門分野의 人力도 動員하여 協力한다면 漢의학의 不明瞭한 部分의 解明이 可能하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方向의 韓의학 發展策의 첫 거름으로 먼저 證이란 무엇이며 辨證施治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자.

證이란 病의 治療根據를 把握하는데 必要한 證據가 되고, 病의 系統을 把握하는데 患者로부터 얻어지는 情報가 되는 症候群인 것이다.

예를 들면 傷寒의 太陽病에서 傷寒과 中風의 證을 辨別하여 治療處方을 選擇하는 要領은 아래와 같다.

太陽病證은 發熱, 頭痛, 項背腰脊強, 脈浮인데

傷寒證은 惡寒, 無汗, 脈緊하며 麻黃湯으로 治療하고

傷風證은 惡風, 自汗, 脈緩하며 桂枝湯으로 治療한다.

또 太陽病은 表證이고, 陽明病은 裏證이요. 少陽病은 半表半裏證인데, 表熱은 惡寒發熱하고, 裏熱은 反惡熱, 潮熱하며, 半表半裏熱은 寒熱往來한다.

太陽病에서 麻黃湯證인 傷寒과 桂枝湯證인 中風을 辨別하는 것은 太陽病人 表證에서 다시 表實證인가 表虛證인가를 區別하여 患者의 身體的 反應을 判斷하고 그 充實度 如何에 따라 瀉할 것인가 또는 補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으로 纖細하고 緻密한 治療對策임을 알 수가 있다. 또 太陽病과 陽明病과 少陽病에서 모두 熱이 있는데 그 熱이 太陽病에서는 惡寒發熱하여 表證임을 나타내고 陽明病에서는 反惡熱潮熱하여 裏證임을 나타내며 少陽病에서는 寒熱往來하여 反表半裏證임을 나타내어 病이 身體 어느 系統에 病變을 이르고 있는가를 判斷하는 根據가 된다. 이러한 辨證施治는 韓의학만이 지니는 特徵임을 아무도 否認할 수는 없다.

定病專方은 或은 專病專方이라고 하며 病이 定해진뒤 한가지 病에 專적으로 쓰

여지는 專用處方을 뜻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專方은 쉽게 定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實踐(臨床經驗)을 통해서 認識되고 再認識(再確認)되어 그 效能이 證明된 處方으로 絶對로 輕視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韓의학 發展을 위하여 專病專方을 더욱더 研究發揚하기를 圖謀해야 한다고 房定亞는 主張한다.

그러면 辨證施治와 定病專方の 差異는 어떤 것인가…….

辨證施治란 急性傳染病을 다루었던 傷寒論에서는 六病(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을 辨別하여 治療하는 것이고, 其他 慢性疾患(雜病)에서는 八綱(陰, 陽, 表, 裏, 寒, 熱, 虛, 實)을 辨別하여 治療하는 方法이다.

이와 같은 方法은 모두 病의 原因을 糾明하기 보다는 病의 進行過程의 病理的 變化에 대한 身體的 反應을 把握하여 그에 대한 治療對策으로서 處方을 選擇하거나 構成하므로써 人體의 自然恢復機能을 促進시켜 治療成果를 取하는 것이다.

定病專方은 오랜 세월 많은 臨床經驗을 通하여 試行錯誤와 成功을 反復하면서 確率높은 治療處方이 發見된 것이며 西洋醫學에서는 病의 原因과 機轉이 糾明된데 대하여 原因治療를 하는 境遇가 된다.

그리고 高鐸穎의 方劑辨證이란 自身이 主張하듯이 오랜 세월 韓의학에서 應用해온 方法으로 處方과 病證을 辨別, 結合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많은 어려움을 덜어주는 便易한 治療對策으로 이것을 日本에서는 「方證相對」라는 말을 써서 表現한다.

III. 結 論

辨證施治는 病의 原因과 機轉이 糾明되지

못한 疾患에 대하여 原因治療處方이 아닌 對證治療處方を 活用하는데 不可避한 方法으로 위의 主張에서 처럼 方劑辨證 그 自體를 크게 研究할 價値가 있는 內容이라고 할 수는 없다. 研究할 必要가 있다면 어떤 病의 症狀群으로 나타나는 證의 病理的 過程과 身體的 反應 사이에 어떻게 相關하여 發顯되는가 하는 것이리라.

辨證施治는 原因療法이 될 수는 決코 없다. 그것은 證을 아무리 分析해도 病의 原因과 機轉糾明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原因은 病 以前의 要因이며 證은 이미 罹病後에 나타나는 症候群이고 그 證이라는 것도 時時刻刻 變해가는 過程인 것이다. 그러므로 辨證施治란 病의 進行經過中 身體의 病理的 障礙와 自然恢復力이 病勢로 나타나는 狀況을 判斷하는 方法이 辨證이고, 거기 該當되는 處方을 選擇 또는 構成하여 治療對策하는 일이 施治로서, 即 病에 대한 身體的 反應을 辨別하여 治療한다는 뜻이 된다. 辨證施治는 疾患治療와 健康恢復에 診療手段으로 必須不可缺한 것이긴 하지만 治療方法으로서 가장 卓越한 方法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自家撞着이다.

定病專方은 오랜 臨床經驗을 通하여 確認된 效率的인 處方으로 定해진 病에 專的으로 使用되는 境遇이며, 西洋醫學에서 病의 原因이나 機轉이 밝혀진데 대한 治療藥이 定해 있을 境遇도 이에 該當된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病의 原因과 機轉糾明이 沒되었을 뿐 아니라, 定病專方이 開發되지 못한 만큼 辨證施治는 훌륭한 治療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辨證施治와 定病專方은 어느것이 더 優秀한 治療方法이나 하는것 보다는 攸久한 歲月 治療手段을 摸索해 오는 過程에 自然스럽게 發達된 治療方法으로

定病專方이 보다 確實한 治療方法이긴 하지만 모든 病의 專方이 開發되기까지는 病名이 糾明되지 않으면 治療方針이 없는 西洋醫學에서 처럼 束手無策보다는 辨證施治로 對處하는 일이 賢明한 方法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辨證施治와 定病專方은 모든 病의 治療方法으로 並存할 것이다.